# “예산 1조원시대 초석 다지고 화순 사는 자부심 높이겠다”

재선 성공 구충곤 화순군수 민선 7기 구상

## 아동·여성·고령 친화도시 조성해 소외 없는 복지혜택
## 백신·생물의약이 선도하는 화순의 新경제지도 만들 것
## 주민 주도 마을재생·품격 있는 문화관광 등 적극 추진

“화순 사는 자부심의 격을 한차원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구충곤 화순군수는 “민선 6기 예산 5000억 시대를 열었던 집념을 바탕으로 예산 7000억 시대를 활짝 열고 1조원 시대를 향한 초석을 다지겠다”며 ‘더 행복한 화순’을 위한 성실한 군정 추진 의지를 다졌다.

구 군수는 민선 6기 군정운영 성과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내 삶을 책임지는 완전복지 ▲멋이 있고 품격 있는 문화관광 ▲생물의약이 선도하는 신(新)경제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업 ▲누구나 믿고 찾는 신뢰행정으로 군정목표를 잡았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먼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여성·가족 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를 조성해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소외됨이 없는 완전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농민수당제 도입과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급식도우미를 전면 시행해 군민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는 화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군수는 미래 먹거리로 백신과 생물의약이 선도하는 신(新)경제지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도 넘쳤다.

그는 “첨단의료복합타운 기반을 조성하고 화순군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생물의약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제2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해 산업시설을 집적화하고 백신제품화 지원 및 정보기술센터와 생물의약품 벤처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국책연구기관 유치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진흥에도 힘을 쏟을 생각이다.

그는 “화순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글로벌 관광자원화로 사시사철, 누구나 즐겨 찾는 품격있는 역사문화기행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에 내년에 개장할 예정인 세계거석테마파크와 고인돌캠핑장 등을 조성하고 고대역사문화정원을 2022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인돌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동아시아 고인돌연구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화순적벽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쓸 방침이다.

여기에다 풍부한 산림생물자원을 보존해 산림복지를 제공하고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등을 육성·관광상품화 하기 위해 화순공립수목원 조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종목의 국제·국내 대회를 유치해 문화·관광과 스포츠를 연계해 화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구 군수는 “현재 있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와 이용대 체육관 등 우수한 체육인프라에 스포츠파크까지 더해지면 화순이 명실상부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군민에게 건강증진 및 휴양·휴식의 장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군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를 추진하고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할 생각이다.

가칭 ‘마을혁신센터’를 설립해 마을혁신사업과 마을재생사업, 마을기업 지원 사업 등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공약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군민과 사회단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 공약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구 군수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지방분권 등 앞으로 준비하고 헤쳐 나가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군수와 공무원, 군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밀려오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기회 삼아 ‘더 행복한 화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민선 7기 군정 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완전복지
▲멋이 있고 품격 있는 문화관광
▲생물의약이 선도하는 신(新)경제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업
▲누구나 믿고 찾는 신뢰행정

## 화순군, 친환경 인증 1358ha 협약…과수농가도 확대

화순군은 2018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 1358ha를 협약하고 친환경재배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유기농 135ha,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상향을 위한 유기전환 1045ha로 친환경인증 중 87%가 유기농으로 전환중이다. 이는 2017년 전체인증면적 1297ha, 유기 78ha, 전환기 160ha, 무농약 1059ha로 유기농 추진 18%였던 것에 비하면 혁신적이다.

화순 유기농 복숭아

화순군은 벼 중심 친환경인증에서 과수와 채소 등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비를 과수는 ㎡당 유기농 130원, 전환기 110원, 무농약 90원을 지원한다.

화순군을 대표하는 유기농 과수는 블루베리와 복숭아를 꼽을수 있는데 전남 블루베리생산자협회가 화순군에 있으며 블루베리 생과에서 와인까지 생산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다. 단일농장으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화순군에서 유기농 복숭아가 재배되고 있다.

과수 재배 농가들은 폐화석과 발효퇴비로 토양의 산도를 조정하는 한편 땅에서 10~15cm정도 남기로 예취작업을 실시 천적 및 미생물의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1주당 2kg정도의 게르마늄을 살포해 토양건강을 살리고 있다.

또 한방영양제 등을 활용해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가 하면 천일염에 끓여 미생물을 배양하고 유기약재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학적인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재배에 노력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농가의 소득보전 및 자연을 살리고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친환경지원을 통해 유기농재배가 농가의 고통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오는 16~18일까지 3일간 서울 COEX에서 개최되는 17회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에 참여해 유기 생산품을 전시할 계획이며 유기가공품인 불미나리 인진쑥즙 등에 대한 해외바이어 상담도 진행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명품 방울토마토 생산 박차…농가 10곳 현장컨설팅

화순군이 명품 방울토마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능주면 방울토마토 시설하우스 현장에서 농가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 현장컨설팅은 방울토마토 생산 과정에서 각 농가가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군은 이번 컨설팅을 위해 재배기술, 품종, 유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했다.

컨설팅에서 농업기술센터는 토마토 정식초기 관리요령과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최근 폭염으로 인한 관리 유의점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컨설팅했다.

이와함께 능주농협은 토마토 유통 현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배관리 유의점 등을 설명했다.

현장 컨설팅에 참여한 안두섭 능주방울토마토공선회장은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막막했었는데 품종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향후 고품질 명품 토마토 생산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최근 능주면 방울토마토 시설하우스 현장에서 농가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지역내 토마토 재배는 91농가 125ha에서 이뤄지고 있고 농업생산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며 “앞으로도 명품 토마토 생산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꾸준히 실시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조직된 능주방울토마토 공선회는 총 10농가 6.3ha 규모로 능주농협에서 공동선별과 출하를 책임지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10억원 매출을 올리는 등 고품질 명품 토마토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6834-7400